

중국진출 한국수산물가공무역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

장영수* · 장춘봉**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 Fisheries Processing Trade Firms' Sequential FDI in China

Jang, Young-Soo* and Zhang, Zhun-Feng**

〈 목 차 〉

I. 서 론	1. 연구모형 및 가설
II.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고찰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III. 한국 수산업의 대중국 교역 및 투자 현황	3. 로지스틱 회귀분석
1. 한·중 수산물 교역 현황	V. 결 론
2. 대중국 수산해외투자 현황 및 사례연구	참고문헌
IV. 실증분석	Abstract
	부록(설문지)

I. 서 론

한국 수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주)수산개발공사가 1970년 싱가포르에 냉동수산물의 국외판매를 목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 자본금 3,371천 달러를 90%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작되었다. 수산업의 해외합작회사는 9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어업부문에 모두 치우쳐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양식업, 수산물 가공업 또는 수산물 유통·무역업 부문에서도 대외 합작·합자투자 또는 단독투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수산물 교역이 활

접수 : 2008년 3월 4일 최종심사 : 2008년 3월 28일 게재확정 : 2008년 6월 2일

[†] 본 과제는 해양수산부 영남씨그랜트 대학사업단 지원금(YSG-RC07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부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957, ysjang@pknu.ac.kr)

**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과 대학원 (051-629-5950, zhangchunfeng83@hanmail.net)

발해지면서 중국에 해외현지법인 신고건수만 해도 253건(2005년 누계)에 달하고 있다. 1992년(한국과 중국이 정식 국교체결)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는 홍콩을 통한 우회투자방식을 취하였으나 국교체결을 계기로 수산업 및 수산물관련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IMF 금융위기로 대중국 투자 건수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그 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중 수산물 교역의 활발함과 대중국 진출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연구에 비해 수산업 및 수산물관련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연구는 아주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 해외직접투자 연구는 투자동기, 진입방식, 진입시기 및 수익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연구 되었지만 투자 이후 모기업의 기업 전략으로서 후속투자, 철수 및 현상유지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도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에 해외직접투자한 한국 수산물유통가공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투자이후 후속투자전략을 수립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요인을 기업요인, 비용요인, 시장요인, 리스크요인, 인프라요인으로 세분화하여 규명함으로써 중국 진출 한국수산기업의 경영 행동과 선택 가능 전략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II.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고찰

Johanson and Vahlne(1977)는 해외투자에 대해 기업이 특정국의 개입 정도를 확대하는 과정이며 기존의 사업활동을 새로운 특정국에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투자에서 현지시장에 대한 경험과 사업환경이나 문화적 패턴, 시장체제 그리고 개별 고객기업 등에 대한 지식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적 지식이 많을수록 지식의 가치는 높아지고 시장에 대한 경영자원 개입 정도도 높아지게 되면서 이를 통한 지식의 축적이 많을수록 후속투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Davidson(1980)은 기업의 국제화 경험과 해외생산활동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지시장에서 사업경험을 가진 기업은 그 국가를 후속투자의 대상지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는 연구 분석에서 미국기업들이 일정기간 수행한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중 약 29%가 최초해외투자 이후의 후속투자였음을 언급하고, 국제화 경험이 많은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지리적, 심리적으로 거리가 더 먼 국가에도 쉽게 후속투자를 수행한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Kogut(1983)는 추가적인 해외투자의 상당부분이 이미 수행중인 해외사업에 투입된다고 주장하여 후속투자가 선행적 투자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은 후속투자 시 해외시장의 제도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

력, 국제사업 활동을 통해 입수한 정보의 외부성, 생산 및 마케팅 활동에서 공동생산의 경제성 등과 같은 측면들을 누리기 위해 자사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Barkema, Bell, and Pennings(1996)는 네덜란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해외투자에서 후속투자 발생가능성은 학습효과로 인해 현지국 시장에 대한 초기투자 경험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현지국에서의 학습은 불확실성 제거, 현지정보의 축적과 경험 등이 후속투자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익수·한병섭(2000)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진출한 한국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기업의 국제적 경험, 자회사의 현지국 경험, 대기업계열 여부, 진입방식 등의 변수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업의 국제활동이 풍부하고 자회사의 현지시장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대기업에 속할수록 모기업과 여타 계열사의 국제활동 경험과 지식 등의 활용가능성이 높으므로 후속투자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강태구(2002)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후속투자를 더 많이 수행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 자산의 특유성, 지식 집약도, 문화적 거리, 해외투자 경험, 현지국 투자 경험 등이 후속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에게서도 확인하였듯이 해외후속투자는 선행적 1차투자에 의한 경험적 정보적 지식 축적이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지국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Ⅲ. 한국 수산업의 대중국 교역 및 투자 현황

1. 한·중 수산물 교역 현황

1) 한국의 수산물 교역 실태

한·중 수산물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수산물 총수출에서 대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6.3%에서 2005년 9.1%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2000년 4억 9천만 달러로 한국 총수산물수입의 3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연평균 10%의 증가 추세로 확대되면서 2005년 9억 4천만 달러로 총수입의 39.3%를 점하고 있다 < 표 1 >.

한편 한국에 반입되는 중국 수산물 중 HS 코드별로 상위 10위 이내의 품목(2005년도 수입금액 실적을 기준)을 동일 HS 코드의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면 < 표 2 > 와 같다.

상위 10위 품목중에서 중국 집중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조기(냉동), 문어(산것/신

〈표 1〉 한국의 수산물 교역 실태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감율 (‘01/’05)	
전 체	수출	1,504,470	1,273,619	1,160,435	1,129,385	1,278,638	1,193,117	-1.6%
	수입	1,410,598	1,648,372	1,884,417	1,961,145	2,261,356	2,383,574	9.7%
	무역 수지	93,872	-374,753	-723,982	-831,760	-982,718	-1,190,457	33.5%
중 국	수출	84,090 (5.6%)	55,709 (4.4%)	48,345 (4.2%)	70,769 (6.3%)	124,102 (9.7%)	108,031 (9.1%)	18.0%
	수입	486,841 (34.5%)	634,449 (38.5%)	719,314 (38.2%)	713,538 (36.4%)	909,536 (40.2%)	936,351 (39.3%)	10.2%
	무역 수지	-402,751	-578,740	-670,969	-642,769	-785,434	-828,320	9.4%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통계연보, 각년호

주 : ()안은 세계 수산물 수출액, 수입액에 대한 중국 수산물의 수출액과 수입액 비중을 나타냄

〈표 2〉 한국의 총수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HS 코드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303-79-6000	조기(냉동)	99.5	99.7	99.7	94.2	99.5	99.7
0307-59-1020	낙지(냉동)	86.8	92.6	87.0	84.7	84.1	84.1
0303-79-3000	갈치(냉동)	75.3	68.0	80.8	70.9	65.1	67.9
0306-14-3000	꽃게(냉동)	27.6	65.0	67.4	65.7	75.0	78.9
1604-30-2000	캐비아대용물	6.5	26.9	46.5	47.1	82.9	77.8
0307-51-0000	문어(산것/신선냉장)	92.3	93.5	93.2	92.9	98.2	97.2
0303-79-9091	아귀(냉동)	28.5	28.2	26.6	29.6	45.4	49.2
0306-13-1000	새우살(새우와 보리새우(냉동))	45.4	46.1	48.6	48.9	51.0	51.1
0304-20-1000	명태피레트(냉동)	96.8	96.5	97.4	93.9	94.6	93.6
0304-90-1090	기타연육(냉동)	12.3	8.5	16.1	17.3	28.2	25.8

주 : 1) 상위품목은 2005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산물수입금액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상위 10위까지임.

2) 집중도 = A품목 중국 수입액 / A품목 우리나라 총수입액

자료 : 수산물수출입정보시스템(<https://trade.suhyup.co.kr/>)

선 냉장), 명태피레트(냉동)이다. 이들 품목은 단일 형태가 아닌 해당 어종의 활어, 신선 냉장품, 냉동품,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수입되면서 한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의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낙지(냉동), 꽃게(냉동), 캐비아대용품, 아귀(냉동), 새우살(새우와 보리새우 냉동) 등 냉동가공품을 중심으로 수입되어 국내 수산물 시장에 있어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은 품목별 우리나라 수산물 총수출에 있어 대중국 수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중 상위 10위 이내에 있는 품목만을 정리한 것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도 기준으로 집중도가 90% 이상인 품목인 대구(냉동)는 99.0%로, 이 품목은

중국진출 한국수산물가공무역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

〈표 3〉 한국의 총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HS 코드	품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307-49-1020	오징어(냉동)	58.4	42.4	31.3	22.9	36.6	34.5
0303-80-2010	명란(냉동/피레트, 어육제외)	0.04	0.6	3.3	42.9	86.4	81.0
0303-79-9080	새꼬리민태(냉동)	9.0	57.8	27.0	31.1	62.5	54.6
0303-60-0000	대구(냉동)	54.8	55.8	54.1	38.9	59.6	99.0
0303-79-1000	명태(냉동)	6.9	72.6	75.3	80.1	80.9	80.3
0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19.9	43.6	50.6	54.2	50.4	38.0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61.1	19.5	41.5	65.3	68.6	62.1
0303-74-0000	고등어(냉동)	1.3	3.9	1.3	8.5	12.7	28.1
0303-79-9010	삼치(냉동)	0.6	-	5.2	26.9	8.8	33.3
0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0.9	1.3	0.3	0.6	6.6	4.7

주 : 1) 상위품목은 2005년 중국으로 수출된 수산물수출금액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상위 10위까지의 품목임.

2) 집중도 = A품목 중국 수출액 / A품목 우리나라 총수출액

자료 : 수산물수출입정보시스템(<https://trade.suhyup.co.kr/>)

2005년 이전에는 60% 이하의 수준이었는데 2005년에 99.0%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대구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 국내소비시장용이 아닌 가공원료용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중국 내 가공공장에서 가공된 후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비율이 높다. 물론 제3국으로 수출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명태(냉동), 명란(냉동), 오징어(냉동), 기타 연체동물(냉동), 고등어(냉동), 삼치(냉동) 등이 수출되고 있다. 이들 품목의 대중국 수출은 가공원료용 수출 성격이 중국 국내소비시장용 수출보다 강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에 있어 중국은 수산물 수입면뿐 만 아니라 수출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대상국으로 위치하고 있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대중국 가공원료수출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산물수입이 연계되어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양국 수산물 교역의 중요한 현단계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국 수산물의 교역 경로

여기서는 한·중수산물교역을 주요 수산 상품 형태별 물류 경로의 차이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대중국 수산물교역 물류는 크게 ①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신선 냉장 수산물과 활낙지 등과 같이 살아있는 연체동물, 활패류의 교역 물류, ② 통영을 중심으로 하는 활어 교역 물류, ③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냉동, 가공 수산물의 교역 물류로 크게 3대 분류를 할 수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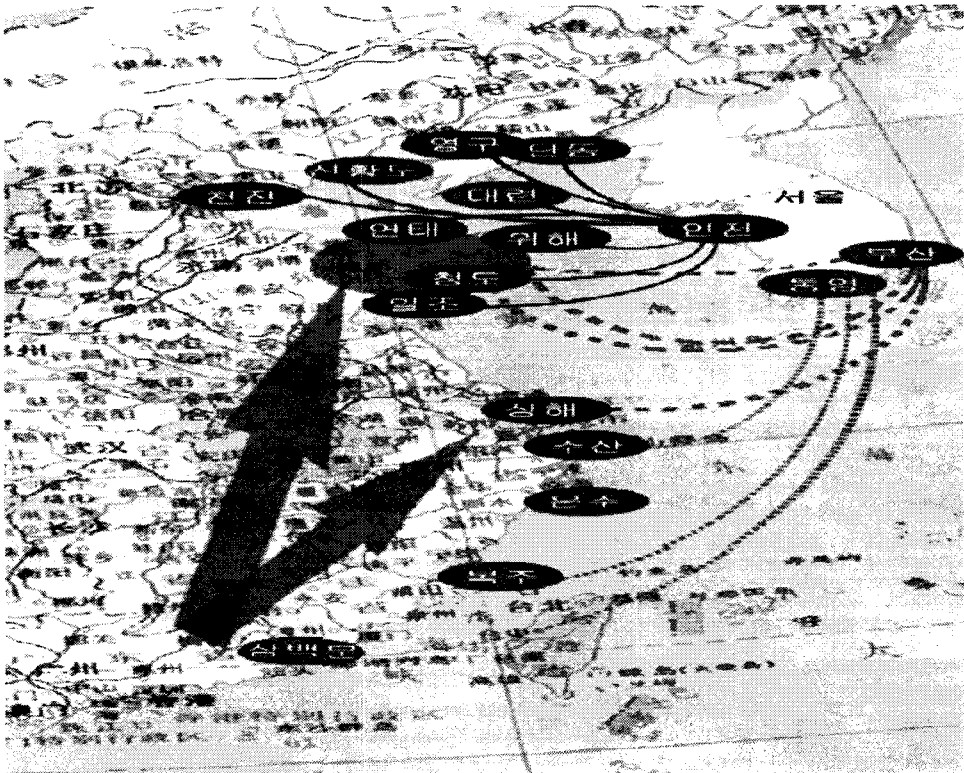
(1) 중국 신선 냉장 수산물의 교역 경로

중국의 단둥(丹東 Dandong), 룡커우(龍口 Longkou), 친 황 다오(秦皇島

Qinhuangdao), 다롄(大連Dalian), 텐진(天津Tianjin), 옌타이(煙台Yantai), 웨하이(威海Weihai), 칭다오(靑島Qingdao), 르자오(日照Rizhao)를 중심으로 생산된 대부분의 신선 냉장 수산물과 활패류, 연체동물은 인천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다.

랴오닝성(遼寧省)의 다롄(大連Dalian), 단둥(丹東Dandong) 지역에서는 꽃게, 낙지, 복어 등의 수산물이 생산되고, 옌타이(煙台Yantai), 웨하이(威海Weihai)는 낙지, 아귀, 조기, 패류 등이,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Qingdao)에서는 가공품(명태, 가자미, 대구 등) 등이 생산되고 있다. 한편 중국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상하이(上海Shanghai), 저우산(舟山Zhoushan), 윈저우(溫州Wenzhou), 쉹푸(石浦Shipu)에서는 꽃게, 조기, 새우, 낙지, 아귀 등의 냉동품이, 영덕, 푸저우(福州Fuzhou)에서는 양식 부세, 민어, 돔 등이 주로 생산되어 신선 냉장 형태로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우선 산지 업자(주로 산지수집상 겸 수출업자, 가공업자)에 의해 원어 형태로 구매된 다음 수산물가공공장으로 반입되고 이후 다시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한국 시장 상황(공급량, 거래가격 등)에 따라 수산물을 어종별·사이즈별로 선별한 다음 신선 냉장 형태로 스티로폴 박스에 제빙 재포장 된다



<그림 1> 중국 수산물의 교역 경로

음 컨테이너 박스에 넣는다. 컨테이너 박스는 인천항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페리여객선의 화물로서 선적된 뒤 교역되는 물류경로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중국 직접투자 한국기업은 수출업자 혹은 가공업자로서 현지 투자가공공장에서 선별 분류 포장한 수산물을 신선 냉장 형태로 한국으로 수출한다. 이러한 신선 냉장 수산물은 선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선이 운항하는 항구 즉 텐진(天津Tianjin), 다롄(大連Dalian), 단둥(丹東Dandong), 룡커우(龍口Longkou), 칭다오(靑島Qingdao), 웨하이(威海Weihai), 옌타이(煙台Yantai), 석도 등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페리여객선을 통해 인천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 경우 중국 내 한국투자기업은 거의 독자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품질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파트너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독자 형태를 취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2) 중국 활어의 교역 경로

활어의 경우는 중국의 저우산(舟山Zhoushan), 푸저우(福州Fuzhou), 산바이먼(三百門Sanbaimen)을 중심으로 생산된 활어가 통영으로 수입되고 있다. 저우산(舟山Zhoushan)에서는 농어, 민어가 주로 양식 생산되고, 푸젠성(福建省Fujiansheng)의 영덕에서는 참돔, 민어, 농어, 감성돔 등이, 산바이먼(三百門Sanbaimen)에서는 민어, 돌돔, 병어, 방어, 능성어, 농어 등이 양식 생산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양식 생산되는 수산물은 우선 현지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 간에 시장 정보를 교환하고 적정 물량, 가격을 교섭한 후 활어 운반선에 선적되어 운송되는 경로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지만 활어 전용 운반선이 부정기 용선 운송이라 현재까지는 운반선 전체를 용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운반선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회 활어 교역 운송시에 필요한 최소 물량은 평균 25~40톤 사이에 이르고 있다.

한편 통영항으로 반입되는 중국 활어 이외에도 앞의 인천 페리 여객선의 화물로서 반입되는 활어 물량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중국 칭다오, 웨하이, 옌타이 이북 지역의 활어 및 활연체동물(활낙지, 활문어 등), 활패류 등으로 활어운반선에 의한 전문 활어 수입보다는 스티로폴 용기에 넣은 다음 컨테이너에 선적한 후 신선 냉장 수산물과 동일한 조건으로 반입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활어는 어류 양식 주산지인 남부 지역의 저우산, 푸저우, 산바이먼 지역에 한·중 정기선 페리가 없는 까닭에 부정기선의 활어 전용 운반선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으로부터 항해 거리가 비교적 짧은 통영 지역을 통해 교역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 양식업을 중심으로 한국 투자

기업이 일부 진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중국 현지인이 한국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3) 중국 냉동·가공 수산물의 교역 경로

중국 냉동·가공수산물의 교역 경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상품 교역 경로와 동일하다. 일반 화물 운반선에 의한 컨테이너 운송(냉동컨테이너 운송)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중국 냉동·가공 수산물 수입은 주로 부산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데, 이는 2006년 현재 한·중 개설 항로 총 68개 노선 중 부산을 기점(출발/도착항)으로 하는 항로가 54개 노선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물류 조건이 그 배경에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냉동·가공 수산물은 비교적 해안 지역을 가진 곳이라면 거의 대부분 가공 생산되고 있지만 그 중심이 되는 곳이 중국 북부 지역의 칭다오, 웨하이, 옌타이, 다롄, 단둥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한국 자본이 진출하고 있는 가공공장이 많이 존재한다. 여기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합자·합작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중국 현지 파트너로부터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를 빨리 획득할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이면서 구매·판매권을 갖기 쉬워 독자기업보다 중국 현지인과의 합자·합작기업의 형태를 더 선호한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이 언어 장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한편, 중국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물 생산 가공품은 육로 운송을 통해 수출물류기지로 이동한 후 한국으로 해상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수출물류기지로서는 남부 지역으로부터 생산 가공된 수산물은 육로 운송을 통해 상하이에 집결되고, 북부 지역은 텐진, 다롄, 칭다오에 집결되어 컨테이너선을 통해 부산에 반입되는 것이 주경로이다.

이러한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기업의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기업들은 단순히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업무를 주로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수산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현지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한국 수출용 수산물 가공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원료를 중국으로 반입한 후 가공 생산물을 한국 또는 일본,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2. 대중국 수산해외투자 현황 및 사례연구

1) 대중국 수산해외투자 현황

한·중 수교이후 중국은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최대 대상국으로 부상되었다. 중국의 노동력, 원재료 자원 확보,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 등을 투자동기로 진출하고 있

다. 1997년 IMF 금융위기시기 투자건수와 금액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1년 중국이 오랜 협상 끝에 WTO에 가입하였고 한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기에 진입함으로써 중국 진출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금능력이나 경영노하우가 풍부한 대규모 기업들이 대중국 진출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중소기업도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표 4〉와 〈표 5〉는 중국에 현지투자법인을 설립한 3000여개 회사 중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현지법인만을 선정하여 정리한 것이다¹⁾. 투자 업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현지법인현황에 등록된 업종을 수산업 및 수산관련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업종 명칭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예를 들면 제조업에서 수산가공업을 추출하고, 유통업에서 수산물 유통/무역업을, 농림어업에서 어업/양식업으로 추출 재정리하였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중국 진출 수산기업은 2005년 누계로 총 253건으로, 업종별로는 수산가공업이 148건으로 전체의 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업/양식업이 79건으로 31%, 유통/무역업이 26건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가공업은 가공능력과 창고보관능력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고 한국과 정기선이 운항되는 항구도시 산둥성(山東省), 랴오닝성(遼寧省)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어업·양식업은 주로 장수성(江蘇省), 산둥성(山東省), 랴오닝성(遼寧省) 등 어업 자원이 풍부하고 양식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표 4〉 대중국 한국 수산 투자 유형 및 분포 (단위: 건)

지역명	수산가공업	유통/무역업	어업/양식업	합계
베이징시	5	-	1	6
장수성	7	-	11	18
장시성	1	-	-	1
지린성	4	-	3	7
푸젠성	2	-	1	3
산둥성	90	17	38	145
랴오닝성	24	1	14	39
쩌장성	8	3	4	15
상하이시	-	-	2	2
하이난성	-	-	2	2
허베이성	1	1	1	3
텐진시	2	2	-	4
헤이룽장성	4	2	2	8
합계	148	26	79	253

자료: 재정경제부 해외직접투자 인포넷 해외현지법인현황(2005년 누계)에서 수산업 및 수산 관련업을 추출하여 정리한 결과임.

1) 현재 수산업 및 수산업 관련 해외현지투자에 관한 통계자료는 없다. 따라서 재경부나 한국수출입은행, KOTRA의 자료를 비교하면서 수산업 및 관련 해외투자업체를 추출하였다.

〈표 5〉 대중국 한국 수산 투자 규모 및 분포 (단위: 천달러)

지역명	신고금액	투자금액	투자잔액
베이징시	17,546	14,907	14,907
장수성	6,228	2,503	2,503
장시성	500	33	33
지린성	1,446	620	620
푸젠성	583	150	150
산둥성	47,106	27,701	26,612
랴오닝성	8,265	4,202	4,202
쩌장성	4,812	3,740	3,740
상하이시	447	447	447
하이난성	500	303	303
허베이성	415	274	274
텐진시	910	90	90
헤이룽장성	596	225	225
합계	89,354	55,195	54,106

자료: 재정경제부 해외직접투자 인포넷 해외현지법인현황(2005년 누계)

한편 지역별로는 한국과 상대적으로 가깝고 교역이 활발한 산둥성(山東省)에 현지 법인을 가장 많이 설립하여 전체 투자건수의 57%(145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 대부분이 수산물가공업과 어업·양식업에 투자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진출한 지역은 랴오닝성(遼寧省)으로 다롄(大連)에 집중되어 있다.

〈표 5〉는 대중국 투자금액을 정리한 것인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중국 수산투자규모는 2005년 누계로 총 89,354천 달러가 신고 되었으며, 이중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55,195천 달러 수준이다. 그리고 투자 이후 철수를 제외한 투자 잔액은 54,106천 달러임을 감안하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철수를 하지 않고 현지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국 해외현지법인 투자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적 성격을 지닌 수산가공업 진출이 많은 산둥성(山東省)의 투자집중도가 가장 높다. 투자금액기준으로 볼 때 산둥성(山東省)은 전체 투자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베이징시(北京市)에 27%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시(北京市)의 경우는 투자 건수는 6건에 지나지 않으나 투자금액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수산가공업 투자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상하이시(上海市)도 투자건수는 2건에 불과하지만 투자금액을 보면 적은 편은 아니다. 상하이시(上海市)에는 주로 고부가가치가 있는 자라양식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사례연구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중국 현지투자 수산기업 중 투자 건수와 투자 규모가 가

장 큰 수산가공업의 대표적인 3가지 사례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중국현지 원료를 중심으로 가공한 후 주로 한국에 반입하는 기업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업체 중 A사는 비교적 빠른 시기인 1998년에 합자회사로서 중국에 진출하였다. 현재 총투자규모는 400만 달러, 종업원 50-70명 수준의 비교적 규모가 있는 현지투자 수산기업이다. A사는 주로 중국산 원료를 중국현지법인 공장에서 가공한 후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주력시장은 주로 한국과 일본으로 한국에는 신선 냉장, 냉동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90%를 차지하고, 일본으로는 주로 아귀, 아귀간을 다른 업체에 위탁가공한 후 수출하고 있는데 매출액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아귀와 같은 흰살 생선의 가공품을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전에는 중국 현지에서 원료를 많이 조달하였으나 근년에 들어서는 현지 원료 조달이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 일본 등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중국 현지의 수산자원 악화 등으로 원료조달이 전보다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료 값도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지 중국산 낙지의 경우 이전에는 Kg당 6위엔이었던것이 지금은 Kg당 29위엔으로 급등한 사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양국 간의 정보교환이 실시간 이루어져 중국 선호 수산물의 경우 한국과 중국 시장 수산물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꽃게의 경우 중국 시장 내 가격이 한국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중국에서는 대중어종으로서 참조기, 갈치 등의 어종을 많이 소비하고 있어 이들 어종의 현지가격은 점점 상승하고 있다.

한편, 신선 냉장품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내의 관능검사가 있어 시장조건에 큰 차이가 없으면 한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²⁾. 중국현지 수출업자(진출업자 포함)는 한국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관능검사에서 통과 못할 경우 6개월 수출 중단 처벌을 받게 되어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A사를 비롯하여 투자초기에는 중국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 폐지되어 중국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 A사와 같은 중국 현지 원료를 중심으로 가공한 후 주로 한국 반입을 목적으로 진출한 수산기업들은 중국 현지의 원료 사정 악화, 현지투자법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2) 중국 현지 조사에서 한국의 관능검사를 객관적 기준이 없는 비과학적 검사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결과(불합격 반송조치)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의 경우 대한민국 수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진출 한국기업은 시장 전환(다각화)을 도모하거나 한국 수산물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표 6〉 A사 현지법인현황

진출 연도	1998년
진출 방식	합자회사
현지법인 연간매출액	400만달러
현지법인 종업원수	50 - 70명(전부 현지인)
현지법인 주력시장	한국, 일본
현지법인 원료원산지	러시아, 중국

세계 해택 철회, 한국 시장의 검사 강화 등으로 경영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경영전략을 도모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 수입원료를 중국현지에서 가공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수입원료를 중국현지에서 가공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기업 중 한국 현지 투자법인 B사는 러시아와 미국의 원료를 수입하여 중국 가공공장에서 가공한 다음 유럽, 미국 및 일본에 수출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B사 중국 진출은 2003년에 시작하였으며 진출방식은 단독투자, 합작·합자투자, 임대 및 임가공방식 중 임가공방식으로 진출한 회사이다. 임가공방식은 리스크가 제일 낮은 진출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임가공방식은 주로 처리장을 임대하여 가공하는 것을 말하고 이런 방식은 한국에 반드시 모기업이 있다. 가공 품목은 주로 가자미, 연어, 대구, 명태 등의 필렛으로 그중에서 가자미 원료는 80%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가공 처리된 가자미 수출시장은 미국(60%), 유럽(30%), 일본(10%) 순이다.

B사 역시 진출한 2003년에 중국정부로부터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세금혜택제도를 적용받아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3년간 법인세의 절반을 면제하는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없어져 중국 국내기업과 동일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의 수도세, 전기세, 폐수처리비 등 비용이 많이 인상된 상태이고 임금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률도 해마다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수준이 2006년 1인당 월급 125달러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150달러로 상승하였으며 중국 현지에서도 3D 기피현상이 나타나 수산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가공포를 뜨는 작업은 숙련도가 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숙련노동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숙련노동력을 확보하기 위

〈표 7〉 B사 현지법인 현황

진출 연도	2003년
진출방식	임가공
현지법인 종업원수	약 150명
현지법인 주력시장	유럽, 미국, 일본
현지법인 원료원산지	러시아, 미국

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임금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상 수입 원료를 중국현지에서 가공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B사와 같은 기업은 중국 현지 임금 상승,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중국 자본과의 동일 경쟁 조건 및 경영 노하우 축적 등으로 새로운 경영 존립 조건을 모색하여야 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고부가가치 가공 후 일본·한국시장으로 수출하는 기업

고부가가치 가공을 목적으로 중국 진출하고 있는 사례는 앞의 2가지 유형의 진출 기업에 비해서는 새로운 가공 품목 및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교적 활발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C사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지향형 중국진출 투자기업 중의 하나이다. C사는 2003년 합자회사 방식으로 중국에 투자 진출하였으며 연간 매출액이 1000만 달러 수준의 비교적 규모가 있는 수산물가공업체이다. 이 업체는 주로 초밥용 골뱅이, 오징어, 장어 등 다양한 수산물을 가공하여 일본과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골뱅이의 경우 주로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오징어는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장어는 칠레에서 수입하고 있다. 물론 중국 현지 원료도 사용하면서 생선 초밥용 가공품은 생산된 후 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출 시장 비중을 보면 일본이 80%, 한국이 20%이다. 초밥용 골뱅이, 오징어, 장어 등의 가공품은 고가가공품이기에 중국 국내소비에는 아직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태이어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공급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 현지의 대형할인점에 납품할 경우 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져 회사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기에 현재는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계획은 없으나 향후 내수시장에 진출할 의향은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2003년 당시 중국측 51%와 한국측 49% 합자회사로 진출하였고 이후 신규투자를 확대하는 등 앞의 두 가지 유형의 진출기업과는 달리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그리 민감하지 않고 활발한 경영을 하고 있다. 이는 아직 생선초밥용 가공이라는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에 대한 중국 현지기업과의 경쟁이 그리 강하지 않고 그들만의 특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에 대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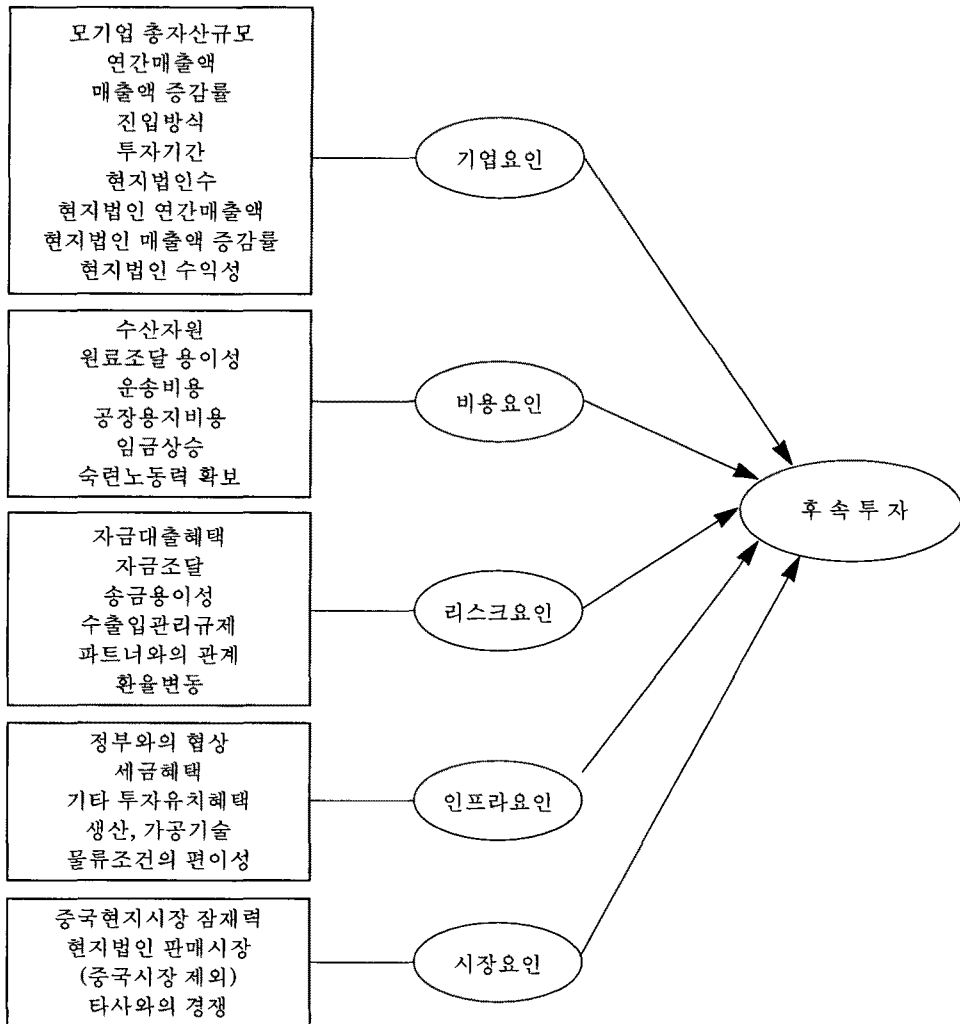
<표 8> C사 현지법인현황

진출 연도	2003년
진출방식	합자회사
현지법인 연간매출액	1000만달러
현지법인 종업원수	약 400명
현지법인 주력시장	한국, 일본
현지법인 원료원산지	러시아, 한국, 중국

IV. 실증분석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그림 2>와 같이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후속투자전략을 수립하는 의사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기업요인, 비용요인, 시장요인, 리스크요인, 인프라요인에 관한 변수들에 대해 검정하기로 한다. 연구변수는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채택한 선행변수들과 중국 현지 조사에서 추출해낸 경험적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연구가설은 <표 9>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중국진출 한국수산물가공무역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

〈표 9〉 가설설정

가설1	기업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2	비용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3	리스크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4	인프라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5	시장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연구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후속투자여부를 자료화하기 위하여 후속투자의향 있으면 '1', 의향이 없으면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후속투자 결정요인을 찾기 위해 모기업규모, 현지법인 경영성과, 수산자원, 정부정책, 시장잠재력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수들은 중국진출 모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재정경제부나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집한 1차 자료를 병행 사용하였다. 각 연구변수에 대한 설문내용은 〈표 10〉과 같다. 그리고 후속투자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질문은 리커트 5점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10〉 연구변수

요인	측정내용	설문항목
기업요인	모기업의 총자산규모	3
	연간 매출액	4
	매출액 증감률	5
	투자기간	8
	현지법인수	9
	진입방식	11
	현지법인 연간 매출액	13
	현지법인 매출액 증감률	14
비용요인	수산자원	17
	원료조달 용이성	18
	운송비용	21
	임금상승	23
	숙련노동력 확보	24
	공장용지 확보	25

요인	측정내용	설문항목
리스크요인	환율변동	35
	자금조달	36
	자금대출혜택	33
	송금의 용이성	37
	수출입관리규제	28
	파트너와의 관계	30
인프라요인	정부와의 협상 용이성	31
	세금혜택	32
	투자유치혜택	34
	생산, 양식, 가공기술의 발전성	29
	물류조건 편의성	20
시장요인	중국현지시장 잠재력	26
	현지법인 판매시장(중국제외) 잠재력	27
	현지에서 타사와의 경쟁	38

2) 연구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

2-1. 표본의 특성

중국에 현지법인 설립 신고건수는 253개인데 그 중에서 수산가공업과 수산물유통·무역업이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가공업과 유통·무역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조사기간 : 2007년 5월1일 - 5월31일). 조사방법은 모기업 주소와 전화번호 확인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확인과 팩스조사를 병행하였고 모기업 주소 확인 가능한 부산 지역 업체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 표 11 > 과 같다.

< 표 11 >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업종	배포수	회수빈도	회수율(%)
수산가공업	30	19	63
수산물유통·무역업	20	14	70
계	50	33	66

2-2. 요인분석

기존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후속투자여부 결정요인을 기업요인, 비용요인, 시장요인, 리스크요인, 인프라요인의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본 연구대상인 수산가공업과 수산물유통·무역업의 경우에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 연구와 같이 5가지 요인으로 나뉘고 있으나 이들 요인 중 기업요인, 비용요인, 리스크요인은 각 3개의 세부 요인으로 구성되고 인프라요인, 시장요인은 2개의 세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중국진출 한국수산물가공무역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

〈 표 12 〉 기업요인 요인분석표

요인명	변수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모기업요인	모기업의 총자산규모	V3	0.910	0.054	0.199
	연간매출액	V4	0.777	0.389	0.167
	매출액 증감률	V5	0.833	-0.300	-0.117
	진입방식	V11	0.589	0.015	-0.416
현지시장 경험	투자기간	V8	-0.065	0.864	0.136
	현지법인수	V9	-0.079	0.806	-0.417
현지법인경영성과	연간 매출액	V13	0.000	-0.056	0.908
	매출액 증감률	V14	-0.271	-0.133	0.823
	수익성	V22	-0.020	0.000	0.968
Eigen Value			3.322	2.054	1.272
% of Variance			36.915	22.821	14.136

KMO: 0.522, Bartlett 구성형 검정: 346.392, 유의확률: 0.000

① 〈 표 12 〉의 기업요인에서는 각 측정항목의 부하량이 0.3을 넘어서고 고유근 값도 1.0 이상인 항목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다시 묶여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모기업의 총자산규모, 모기업의 연간 매출액, 모기업의 매출액 증감률, 투자방식이 모기업 규모로 묶여졌으며 현지법인수와 투자기간이 현지시장 경험으로, 현지법인 연간 매출액, 현지법인 매출액 증감률, 현지법인 수익성 만족도가 현지법인 경영성과로 묶여졌다. 요인분석의 적합도 판정을 위한 KMO의 적합도는 0.522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정치는 346.392로서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 표 13 〉의 비용요인에서는 원료조달 용이성과 수산자원을 원료비용요인으로, 운송비용과 공장용지 확보비용을 물류비용요인으로 분류되고, 임금상승과 숙련노동력 확보비용이 동일한 요인으로 분류되고 임금비용요인으로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인분석의 적합도 판정을 위한 KMO의 적합도는 0.651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정치는 57.537로서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3 〉 비용요인 요인분석표

요인명	변수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원료비용	수산자원	V17	0.826	0.435	0.150
	원료조달 용이성	V18	0.855	-0.020	0.086
물류비용	운송비용	V21	-0.294	0.867	-0.085
	공장용지 확보비용	V25	0.150	0.906	0.159
임금비용	임금상승	V23	-0.315	-0.036	0.898
	숙련노동력 확보비용	V24	-0.094	-0.097	0.861
Eigen Value			1.937	1.581	1.416
% of Variance			32.276	26.345	23.593

KMO: 0.651, Bartlett 구성형 검정: 57.537, 유의확률: 0.000

〈 표 14 〉 리스크요인 요인분석표

요인명	변수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자금리스크	자금대출혜택	V33	0.921	0.071	0.150
	자금조달	V36	0.876	0.039	-0.240
현지리스크	송금용이성	V37	0.085	0.698	-0.514
	수출입관리규제	V28	-0.533	0.781	0.056
	파트너와의 관계	V30	0.325	0.785	0.188
환율리스크	환율변동	V35	-0.030	0.057	0.907
Eigen Value			1.937	2.097	1.123
% of Variance			32.285	34.950	18.719

KMO: 0.503, Bartlett 구성형 검정: 92.166, 유의확률: 0.000

③ 〈 표 14 〉의 리스크요인에서는 수출입관리규제, 파트너와의 관계, 송금 용이성을 현지리스크요인으로, 자금조달과 자금대출혜택을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지고 자금리스크요인으로 명할 수 있을 것이다. 환율변동변수의 부하량이 0.907로서 0.3을 넘어서고 고유근 값도 1.123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하였다. 요인분석의 적합도 판정을 위한 KMO의 적합도는 0.503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정치는 92.166로서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 표 15 〉의 인프라요인에서는 정부와의 협상, 세금혜택, 세금혜택을 제외한 기타 투자유치혜택 이 세 가지 변수가 동일한 요인으로 분류되고 정부 정책요인으로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 가공기술변수와 물류조건변수가 시설요인으로 묶여졌다. 요인분석의 적합도 판정을 위한 KMO의 적합도는 0.669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정치는 91.312로서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5 〉 인프라요인 요인분석표

요인명	변수	항목	요인1	요인2
정부 정책	정부와의 협상 용이성	V31	0.632	0.104
	세금혜택	V32	0.952	0.155
	기타투자유치혜택	V34	0.719	-0.046
시설	생산, 가공 기술	V29	-0.083	0.931
	물류조건 편의성	V20	0.527	0.657
Eigen Value			2.314	1.128
% of Variance			46.271	22.564

KMO: 0.669, Bartlett 구성형 검정: 91.312, 유의확률: 0.000

⑤ 〈 표 16 〉의 시장요인에서는 중국현지시장의 성장잠재력변수와 중국시장을 제외한 한국시장 등의 수출시장의 성장잠재력변수를 시장잠재력요인으로 묶여졌고 중국현지에서의 타사와의 경쟁변수는 부하량이 0.3를 넘어서고 고유값도 1.0 이상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고 경쟁요인으로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인분석의 적

중국진출 한국수산물가공무역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

< 표 16 > 시장요인 요인분석표

요인명	변수	항목	요인1	요인2
시장잠재력	중국현지시장	V26	0.883	-0.128
	현지법인 판매시장 (중국시장제외)	V27	0.890	0.089
경쟁	타사와의 경쟁 (중국현지)	V29	-0.019	0.995
Eigen Value			2.314	1.128
% of Variance			46.271	22.564
KMO: 0.781, Bartlett 구성형 검정: .12.610, 유의확률: 0.006				

합도 판정을 위한 KMO의 적합도는 0.781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정치는 12.610로서 유의확률 0.006으로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 (Cronbach's alpha) 계수값을 사용하였다. 크론바하 알파값이 어느 정도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6이상이 되면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요인, 비용요인, 시장요인, 리스크요인, 인프라요인 등 5개 요인별로 각 설문항목들을 대상으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하였다.

< 표 17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요인 중의 모기업요인, 비용요인, 리스크요, 인프라요인, 시장요인 중의 시장잠재력요인의 신뢰성 계수 즉 크론바하 알파의 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측정도구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요인중

< 표 17 > 신뢰도 분석표

구분	설문 항목수	최초 Alpha	제거된 항목수	최종 Alpha	
기업요인	모기업요인	4	0.7474	-	0.7474
	현지시장 경험	2	0.1519	2	제거
	현지법인 경영성과	3	0.4169	1	0.7350
비용요인	원료비용	2	0.6040	-	0.6040
	물류비용	2	0.7401	-	0.7401
	임금비용	2	0.8081	-	0.8081
리스크요인	자금리스크	3	0.8000	-	0.8000
	현지리스크	2	0.6372	-	0.6372
	환율리스크	1	-	-	-
인프라요인	정부 정책	3	0.6932	-	0.6932
	시설	2	0.6323	-	0.6323
시장요인	시장잠재력	2	0.7191	-	0.7191
	경쟁	1	-	-	-

의 현지시장 경험요소와 현지법인 경영성과의 신뢰성계수는 각각 0.1519, 0.4169로 나타나 다른 요인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측정도구의 일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변수를 제거하여 각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3. 로지스틱 회귀분석

여기에서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각각의 요인점수와 후속투자여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앞에서 정의한 가설을 검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모수 추정치가 주어진 경우 관측치의 확률 우도 (likelyhiid)는 1보다 작은 수로 추정된 모형이 얼마나 자료에 적합한가에 대한 측정치로서 우도의 로그의 -2배(-2LL: -2 Log Likelyhood)로 이용한다. 관측된 결과의 우도가 높을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이 관측된 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 즉 모형이 얼마나 적합한가를 측정하는 도구로 적합도 통계량 (goodness-of-fit statistic)은 관측된 확률과 모형에 의해 예측된 확률을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표 18〉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표

구분	Variable	B	S.E	Wald	Sig	Exp(B)
기업요인	모기업요인	0.610	0.449	1.842	0.175	1.840
	현지법인 경영성과	1.258	0.610	4.258	0.039	0.284
비용요인	원재료비용	-0.076	0.342	0.049	0.825	0.927
	물류비용	1.892	0.784	5.824	0.016	6.635
	임금비용	1.856	0.655	8.027	0.005	6.399
리스크요인	현지리스크	0.278	0.349	0.635	0.025	1.320
	자금리스크	0.390	0.351	1.237	0.266	1.477
	환율리스크	0.464	0.354	1.1717	0.010	1.591
인프라요인	정부 정책	15.965	84.586	0.036	0.001	8.768
	시설	0.562	0.358	2.465	0.116	1.753
시장요인	시장잠재력	1.730	0.753	5.275	0.022	5.639
	경쟁	-1.099	0.830	1.752	0.186	0.333

-2Log 우도: 38.315

chi-Square : 10.587, 유의확률: 0.004

Hosmer와 Lemeshow 검정 유의확률: 0.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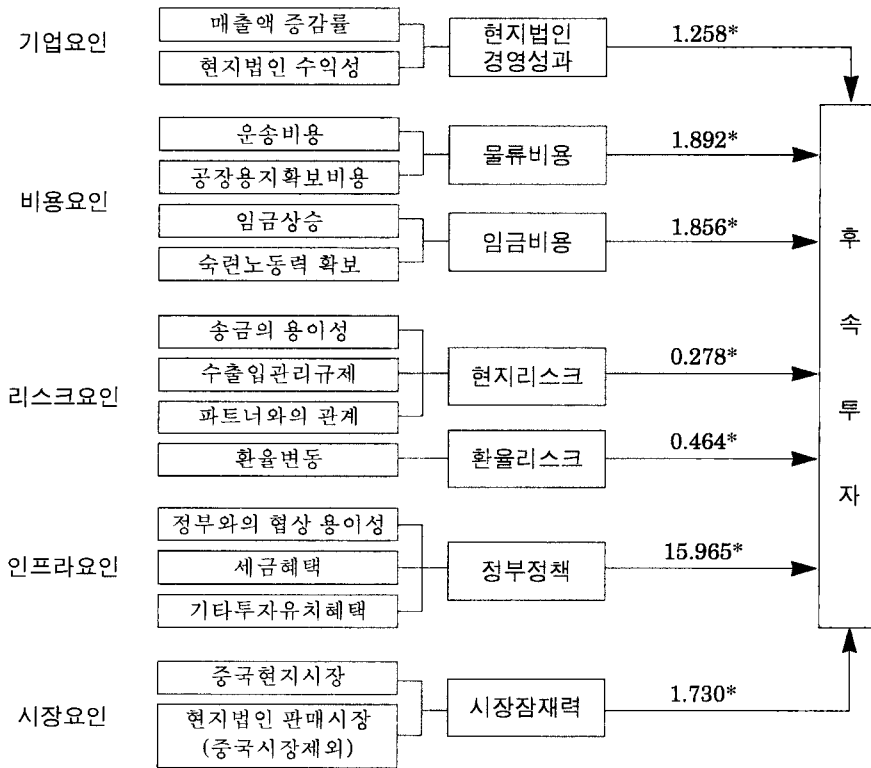
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표 18〉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기업요인에서는 현지법인경영성과, 비용요인에서는 물류비용, 임금비용, 리스크요인에서는 현지리스크와 환율리스크, 인프라요인에서는 정부 정책, 시장요인에서는 시장잠재력요인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후속투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은 큰 틀에서는 채택되었다 〈표 19〉.

중국진출 한국수산물가공무역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

〈표 19〉 가설검증 결과

가설1	기업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택
가설2	비용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택
가설3	리스크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택
가설4	인프라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택
가설5	시장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택



주 : *P < 0.05

〈그림 3〉 중국진출 한국수산물 가공무역 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

한편, 이런 요인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의 기업요인, 비용요인, 리스크요인, 인프라요인, 시장요인이 중국진출 수산기업의 후속투자에 각각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특히 인프라요인 중 중국 정부정책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중국진출 사례연구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중국 정부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정책(법인세감면 등)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해외진출기업의 후속투자에 위축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요인은 수산원료지향적 진출기업과 노동지향적 진출기업의 후속 경영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물류비용, 원료비용의 급격한 상승 역시 후속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중국 현지 시장잠재력 및 해외시장개척 및 확대(일본, 한국 생선초밥가공사례)에 따라서는 후속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중국 진출 투자 목적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추구 전략이 모색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중국 진출 한국 수산물유통가공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으로 기업요인, 비용요인, 리스크요인, 인프라요인, 시장요인이 후속투자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별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업요인을 보면 현지법인 경영성고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기업이 클수록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현지법인 경영성고가 높아야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② 비용요인을 보면 원료조달, 운송비용, 공장용지 확보, 숙련노동력 확보, 임금상승이 결정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초 수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자원지향형 투자로서 투자업종도 어업부문에만 치우쳤는데 현재는 수산가공업, 수산물유통·무역업 등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 둘 부문이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원보다도 생산효율지향형 진출기업으로서 후속투자 결정 시 수산자원의 영향은 비교적 적게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원료의 경우는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원료조달의 용이성보다는 운송비용, 수산가공공장 설립 시 공장용지의 확보에 투입되는 비용, 일반노동력 및 숙련노동력 비용, 중국현지의 상승하는 최저인건비기준 등과 같은 물류비용과 임금비용요인이 후속투자 전략수립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리스크요인을 보면 수출입관리규제, 파트너와의 관계, 송금의 용이성 등 현지리스크요인이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현지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입할 때 중국의 수출입관리규제가 엄격하면 중국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상유지 또는 철수전략을 수립하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중국진출 기업 대부분이 합작·합자 투자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후속투자전략을 수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한편, 자금조달, 자금대출혜택 등 자금리스크는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것은 중국에 진출한 수산기업은 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건당 평균 투자금액을 보면 제조업의 약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

기 때문에 자금조달문제는 모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거나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대출혜택정책을 일정하게 주는 반면 사실상 외국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혜택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자금대출 혜택의 많고 적음은 수산업 분야의 후속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④ 환율리스크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미국 달러 등에 대한 환율을 표시하기 시작한 것은 1957년부터이다. 이는 계획경제에 의한 완전고정환율제이었던 것이 현재는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 환율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이 심할 경우 손익이 많이 발생하여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후속투자 전략의 수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인프라요인을 보면 정부와의 협상, 세금혜택을 포함한 투자유치혜택이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우대정책에는 행정적 우대, 조세법상의 우대정책이 있는데 정부와의 협상이 용이하지 않으면 경영활동상의 편이성이 떨어져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중국은 1994년 공상세제(工商稅制)개혁 이후 다시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의 중심은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세계상의 공평성과 국내외 기업에 대한 무차별대우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제 개혁으로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주어지던 기업 소득세의 우대세율이 폐지되고 일부 남아 있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관세 상의 우대도 중국기업들과 차별성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진출 수산기업은 세계상의 혜택 등 우대정책이 점점 없어져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지면서 후속투자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⑥ 가공 등 생산기술과 물류조건 등 시설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는 중국진출 수산가공업은 중국에서 주로 단순 가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공기술의 발전은 후속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중국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기업들이 매력을 느끼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 항만시설 확충 등 현지 여건은 이미 많이 발전되었다. 따라서 물류조건의 편이성 등 시설요인이 새로운 유인 요인으로서 후속투자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⑦ 시장요인을 보면 중국현지시장의 시장잠재력과 현지법인의 판매시장(중국시장 제외)의 잠재력이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산기업들은 초기 자원지향형 진출로부터 현재의 생산효율지향형과 시장지향형으로 투자

동기가 변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은 아주 방대한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두려움과 여러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장기간을 두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하려는 기업이 다수이다. 향후 기업들은 생산효율지향형과 시장지향형을 병행하여 투자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시장지향형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⑧ 타사와의 경쟁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현지에서의 타사와의 경쟁이 치열해짐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의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타사와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후속투자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에 후속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정부정책요인, 비용요인, 시장잠재력요인, 경영성과요인, 리스크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정부정책요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도 후속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의 불안정한 제도적 변화와 같은 정부 정책요인이 우선 현시점에서는 경영자의 후속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낮은 임금비용을 투자동기로 하는 단순가공 기업들은 점점 인상되는 임금, 세금혜택의 폐지, 중국 현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수산기업들의 중국 투자 진출은 기존과는 다른 고부가가치상품의 개발 및 생산, 시장세분화, 신시장 개발 등 새로운 개발 전략을 배경으로 하는 전략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강태구, “한국 전자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제경영연구, 제 13권 2호, 2002, pp. 1 - 28.
- 김익수, 한병섭, “한국 조림금속업체의 對中 후속투자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영연구, 제11권 2호. 2000, pp. 217 - 248.
- 박영렬, “한국 제조업체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합작투자와 단독투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세경영연구, 제36권 제1호, 1995, pp. 107 - 123.
- 박영렬, 박용석, 김은희, “일본제조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소유 지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연구, 12권 2호, 2001, pp. 1 - 30.
- 오용석, 현재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나남출판, 2004, 9.
- 이재기, 글로벌시대의 해외투자론, 신론사, 2005.
- 包 特力根白乙, “中國における水産貿易とその規定要因”, 漁業經濟研究, 第49卷 第3號, 2005, pp. 61 - 76.
- 李 志明, “日本企業の海外進出と撤退の實態とその要因に関する研究”, 東京海洋大學校, 2004.
- 大日本水産會, 水産業における海外直接投資に関する綜合研究(Ⅱ), 大日本水産會, 1994. 3
- 張瑛秀, 韓日水産物貿易の構造變化と輸出關聯資本の動向, 漁業經濟研究, 第38卷 第1號, 1993, pp. 19 - 45.
- 石井昌司, 日本企業海外事業展開, 中央經濟社, 1992.
- 齊藤高宏, わが國食品産業の海外直接投資, 筑波書房, 1992.
- 洞口治夫, 日本企業海外直接投資 - 아시아への進出と撤退, 東京大學出版會, 1992.
- Barkema, H.G., J.H., Bell and J.M. Pennings, “Foreign Entry Cultural Barriers, and Learning”,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 1996, pp. 151 - 166.
- Chang S. J. and P. M. Rosenzweig, “The Choice of Entry mode in Sequential Foreign Direct Innov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 2001, pp. 747 - 776.
- Davidson, W.H.,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tivity: Country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 Effec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1(2), 1980, pp. 9 - 22.
- Johanson J. and J. Vahlne,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of the Firm-A Model of Knowledge Development and Increasing Foreign market Commit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8, 1977, pp. 23 - 32.
- Kogut, B.,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a Sequential Process*, in C.P. kindleberger and D.B. Andretsch(eds.),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the 1980s*, Cambridge:MIT Press, 1983, pp. 35 - 56.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 Fisheries Processing Trade Firms' Sequential FDI in China

Jang, Young-Soo and Zhang, Zhun-Feng

Abstract

In 1970, direct overseas investment in Korean fisheries started to sell the frozen marine products to Singapore with establishing local subsidiary. Direct overseas investment in China has carried out since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 relationship in 1992. the former day, The Korea invested indirectly in China via Hong Kong. It has reported that 253 local subsidiaries applied to China government permit at the end of 2004. The results will make a decision on whether to invest continuously. The results of actual proof analysis has announced that a successful investment of fishery company is mainly influenced in its own government policy. Many advantages of tax and administration for foreign company in China have been changed and vanished comparing to the beginning time of entering china. So, it is imperative for Korean government to take measures to changing policy of Chinese government. The early days, investment of fishery company is type of resources and abundant resources will affect succeeding investment. Nowadays, the type of the investment is the production oriented investment. And then many direct investment linked the production oriented investment have been conducted in many area in China. So, the production oriented investment will affect logistics and successful investment in China. And, The factor of Market potential in Market Factors in the middle of changing market oriented investment will conclude whether to invest. As the china exchange system changed from the fixed exchange system to the fluctuating exchange system. Risk of exchange rate will affect corporate' s parent business. The local risk (regulation of import and export , remittance) will affect succeeding investment of corporate' s parent

key words : China, A local subsidiary, Fisheries Firm, Sequential FDI,

【부 록】

중국진출 수산기업의 후속투자여부 결정요인에 관한 설문지

◆ 다음은 귀사(본사)의 전반적인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본사의 창설연도는? _____ 년
2. 본사의 종업원 수는? _____ 명
 - ① 10명 이하
 - ② 11 ~ 30명
 - ③ 31 ~ 50명
 - ④ 51 ~ 70명
 - ⑤ 71 ~ 90명
 - ⑥ 기타()
3. 본사의 총자산규모는? _____ 원
 - ① 5억 미만
 - ② 5 ~ 10억
 - ③ 11 ~ 20억
 - ④ 21 ~ 30억
 - ⑤ 31~40억
 - ⑥ 기타()
4. 본사의 연간 매출액은? _____ 원
 - ① 10억 미만
 - ② 10 ~ 30억
 - ③ 31~ 50억
 - ④ 51~ 70억
 - ⑤ 71억~90억
 - ⑥ 기타()
5. 본사의 매출액 성장률은? _____ % (최근5년 평균치)
 - ① 5% 미만
 - ② 5 ~ 10%
 - ③ 11 ~ 15%
 - ④ 16 ~ 20%
 - ⑤ 20% 이상
 - ⑥ 기타 ()
6. 본사의 주력업종은? (하나만 V)
 - ① 수산가공업
 - ② 유통/무역업
 - ③ 어업
 - ④ 양식업
 - ⑤ 기타 ()
7. 귀사가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V)
 - (1) 안정적인 원재료공급선의 확보를 위하여
 - (2)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 (3)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 (4) 배당 등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 (5)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 (6) 수출입에 수반하는 환율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 (7) 현지시장 및 제3국시장으로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 (8) 기타 _____

◆ 다음은 중국현지법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 8. 최초투자 연도는? _____년
- 9. 중국현지법인 수는? _____개
- 10. 중국현지법인의 위치(도시명) _____
- 11. 투자방식은
 - ① 단독투자 ② 합작 · 합자투자(소유지분을 _____%)
- 12. 중국현지법인 종업원수 _____명 (한국인 _____명)
- 13. 중국현지법인 연간 매출액은 _____ US\$
 - ① 10만불 미만 ② 11 ~ 30만불 ③ 31 ~ 50만불
 - ④ 51 ~ 70만불 ⑤ 71 ~ 90만불 ⑥ 기타 ()
- 14. 매출액 성장률은 _____% (최근 5년 평균치)
 - ① 5% 미만 ② 5 ~ 10% ③ 11 ~ 15%
 - ④ 16 ~ 20% ⑤ 20% 이상 ⑥ 기타 ()
- 15. 중국현지법인 투자업종은? (주된 하나만 V)
 - ① 수산가공업 ② 유통/무역업 ③ 어업
 - ④ 양식업 ⑤ 기타 ()
- 16. 중국현지법인의 주력시장은?
 - ① 현지시장 ② 한국시장
 - ③ 제3국시장 (국가명) _____, _____

중국진출 한국수산물가공무역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

◆ 다음은 후속투자의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현재 중국의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귀사가 취급하는 어종)	①	②	③	④	⑤
18. 중국현지에서의 원재료조달은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해외에서 중국현지로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가공수출형 원재료에 대해 세제혜택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중국현지에서 원재료, 생산품 수출입시 운 송이 편리하다(물류조건)	①	②	③	④	⑤
21. 중국현지에서 수출입 시 운송비용이 상대적 으로 적다	①	②	③	④	⑤
22. 중국현지법인의 수익성에 대해 만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3. 중국현지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중국현지에서 숙련노동력 확보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5. 중국현지에서 공장용지 확보가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중국현지 시장성장 가능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27. 중국현지법인의 판매시장(중국현지시장외) 성장잠재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28. 중국현지에서 수출입시 상대국의 수출입 관 리규제는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9. 중국현지의 생산, 양식, 가공기술이 많이 발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0. (합자 · 합작 경우)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1. 중국현지법인의 경영에 있어 중국정부와의 협상이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32.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세금혜택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3. 중국 현지정부의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대출혜택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4. 중국 현지정부의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기타 (세금, 금융혜택제외) 투자유치혜택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5. 중국현지의 환율변동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36. 중국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37. 중국현지에서 해외으로의 송금이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38. 중국현지에서 타사와의 경쟁이 치열하다	①	②	③	④	⑤
39. 귀사는 향후 중국현지법인에 후속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